

극심한 가뭄·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이슈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발표...긍정 3개·부정 7개 56년만에 무등산 정상 개방·여수 난개발·영산강 재자연화 중단 등

저수율 바닥을 드러내는 극심한 가뭄,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논의 등을 올해 환경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잇따랐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27일 환경분야 이슈를 모아 '2022년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제한급수 우려=광주·전남 지역에 심각한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 등으로 올 한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지난 10월부터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광주시는 지난 13일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부터 제한급수라는 비상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제한급수의 구체적 날짜까지 제시했다. 내년 3월에 제한급수가 시행된다면 1992년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지난 22일~24일 최대 4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지만 27일 광주·전남 주요 상수원인 동백담과 주암담의 저수율은 각각 26.4%와 29.3%에 머물러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미 제한급수가 생활이 되버린 곳도 있다. 완도 급일도, 남도 등지에서는 식수원인 저수지와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1일 급수 6일 단수' 같은 식으로 물 공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병용

을 공급하고 급수차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가뭄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5년만에 재가동 한빛 4호기=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안전 포기한 채 한빛핵발전소 4호기 재가동'을 올해 주요 뉴스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11일 발전을 재개한 한빛원전 4호기는 2017년 정기검사에서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원전 설비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벽면에서 공극(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틈) 140개가 발견돼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높은 건축 자재로 틈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구조 건전성 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통과되면서 발전이 재개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빛 4호기의 구조건전성 평가는 전면조사가 아닌 가상의 실험을 바탕으로 해 신뢰할 수 없고, 안전성 조사에 주민 참여 등 주민과 합의한 7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8월부터 계획예방정비(설비검사와 점검 등을 하는 일)를 받은 한빛 1호기도 지난 20일 전출력에 도달했다. 내년 1월 초에는 한빛 6호기도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다시 시작한다. 약 6년여만에 영광 한빛핵발전소 6기의 원자로가 모

두 가동되는 것이다. ◇무등산 정상개방= 56년만에 무등산 정상이 광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광주시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9월부터 무등산 정상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1966년 무등산 정상에 군 부대가 주둔한 이후 56년만이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매년 한 두차례 이벤트 행사로 무등산 개방 행사를 진행했다. 2015년에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이 맺어졌지만 이후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구성된 민관군 협의체는 2023년 12월까지 방공포대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무등산 정상부 군부대 이전 실행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은 이 외에도 ▲여수 난개발 문제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개발로 인한 유달산 경관 및 문화재 가치 훼손 ▲영산강 재자연화 중단 ▲광양 초남공단 앞 갯고동 집단폐사 ▲자원순환마을 등 일상 속 시민의식 전환 정책 시행 ▲광주·전남 에너지 전환 정책 후퇴 ▲장륙습지에서 열린 한국강의 날 대회 등을 올해 환경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10대 뉴스 중 긍정적인 뉴스는 3개, 부정적인 뉴스는 7개였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안전과 보전과 같은 공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보다 왜곡된 경제논리가 우선되지는 않는다"며 "2023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초고령사회 치매 극복 앞장선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아시안치매연구재단·코랩과 업무협약

광주복지연구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주)코랩과 함께 치매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지난 26일, 타운 회의실에서 이들 기관들과 치매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뇌 인지기능 개선제(2000만원 상당)를 전달받았다. (사진) 협약식에는 아시안치매연구재단 김성진 이사장,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이근호 단장, ㈜코랩 김하숙 대표이사,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윤석구 원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주경남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치매분야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치매 공공교육 프로그램 협력 ▲치매예방을 위한 스포츠, 오락, 문화활동 상호지원 ▲치매연구의 교류, 협력 및 홍보 지원사업 ▲치매치료제 등의 임상분야 상호협력 추진 등 공동 협력기관의 상호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했다. 김성진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빛고을노인타운의 실증기반과 재단의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코랩의 제품생산능력 등 상호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광주시가 치매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숙 코랩 대표이사는 "치매 임상시험 관리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많은 기관이 협업을 추진 만큼 치매예방과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경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교류 및 협력사업 증진을 통해 광주시가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동구 주민들 '100일간 쓰레기 줄이기 실험' 40% 감량

세번째 실험 성과보고회

광주시 동구 주민들이 '100일간 쓰레기 줄이기 실험'에 참가해 최대 40%의 쓰레기를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최근 동구청에서 쓰레기 줄이기 성과보고회를 열고 100일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동구에서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실험에는 동구에 거주하는 100가구에서 100명이 참가했다. 35세 이하 청년가구(13가구)부터 70대까지 참여했고, 거주 형태도 원룸, 단독주택 등으로 다양했다.

동구 주민들은 지난 8월~11월까지 100일동안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의 배출량을 직접 기록하며 쓰레기 감량 실험에 나섰다.

이들은 8월 6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은 평소처럼 생활하며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기록하고, 그 뒤부터는 8월22일~9월20일(30일), 9월 21일~10월 20일(30일), 10월 21일~11월 13일(24일)로 나눠 본격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실험을 하며 감축량을 항목별로 기록했다.



광주 동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과일 껍질을 말리고 있다.

실험결과 가구당 1일 쓰레기 총배출량 평균은 약 44% 감소(8월 840g→11월 473g)했다. 1인당 1일 쓰레기 총배출량 평균도 약 30% 감소했다.

쓰레기 줄이기 실험 전인 처음 보름간 '1인당 1일 배출량'은 일반쓰레기 112g, 재활용품 104g, 음식물 119g이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모든 항목에서 쓰레기가 줄어 일반쓰레기 69g, 재활용품 57g, 음식물 72g으로 각각 28%, 34%, 31%씩 감소했다. 특히 재활용품 부문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청년 참가자인 최은혜(여·20)씨는 100일 실험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으로 추석 명절 남은 음식으로 직장 동료들과 비빔밥을 만들어 먹은 것을 꼽았다.

최씨는 "회사 사람들과 각자 역할을 정하고 이것저것 가지고와 비빔밥을 만들어 먹은 재미가 제법 쏠쏠했다"며 "실험 참가 경험이 평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렸던 물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부분이 늘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수어 통역·상담 서비스...남구 '농아인쉼터' 개소

광주시 남구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수어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농아인 쉼터'가 문을 열었다.

27일 남구와 (사)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남구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월산동 새마을금고 4층에서 남구 농아인쉼터 개소식이 열렸다.

지난 2020년 광주수화통역센터가 폐쇄된 이후 관내 농아인을 위한 교류 및 휴식공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 쉼터를 조성

하게 됐다. 쉼터에는 농아인을 위한 수어교육실 및 프로그램 진행 공간,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남구는 농아인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쉼터에 종사자 3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을 상시 근무자로 배치한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에 새롭게 문을 연 농아인 쉼터에서 농아인들이 마음껏 소통하며 활기찬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